

원초적 본능



김 봉 수 위원
부산중재부
전 부산MBC 보도국장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히말라야를 동경한다. 히말라야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나는 바로 그곳을 다녀왔다. 경이롭고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히말라야의 가파르고 험한 길, 고산병과 추위는 에베레스트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었다. 나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 에베레스트는 포근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장엄하고 광대했다.

겨울비가 내리는 1월 21일 인천공항을 이륙한 항공기는 8시간 만에 नेपाल의 수도 카트만두에 착륙했다. 다음날 새벽 에베레스트의 전초 기지 루크라행 첫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날씨 관계로 नेपाल 항공기는 결항 또는 연발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우리 일행 9명은 루크라에서 대기하고 있던 포터, 가이드, 주방요원들과 함께 목적지인 칼라파트르(해발 5,560미터)를 향해 열이틀간의 트레킹에 나섰다.

히말라야의 겨울 하늘은 푸르다 못해 옥색이다. 만년설을 머금은 설산은 밝은 햇살로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히말라야를 다시 걷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나는 기분이 좋았다. 60대라는 나이를 이유로 만류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나는 내년이면 더 나이가 들고 늙어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었다.



눈과 구름이 순환하는 곳, 이곳이 히말라야다

산행 사흘째 아침,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해발 8,890미터)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트레이드마크인 깃털 구름을 나부끼며 로체(8,516미터), 출라체(6,440미터), 타보체(6,495미터), 아마다블람(6,812미터) 등 10여 개의 설봉을 거느리고, 나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마다블람[Ama Dablam]이라는 산 이름은 ‘어머니와 진주목걸이’라는 뜻이며, 마차푸차레, 마테호른과 함께 세계 3대 미봉(美峰)으로 꼽힌다)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나는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았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낸 그 어떤 위대한 창조물도 자연의 티끌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4,000미터 고지에 접어들자 나무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강한 바람이 분다. 산허리를 돌고 돌 때마다 장막에 가려졌던 새로운 봉우리들이 자태를 뽐내며 얼굴을 내민다. 가까이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나는 히말라야의 속살을 보고 만지며 에베레스트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었다.

생애 처음으로 5,000미터 고지를 넘어 덩보체리 봉우리(5,083미터)에 도전했다. 산소가 평지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숨이 턱밑까지 차올랐다. 몇 번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는지 모른다. 지난해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4,160미터)를 오를 때보다 훨씬 힘들었다. 덩보체리에서 내려다본 히말라야는 위아래 좌우 그 어디도 막힌 곳이 없었다. 봉우리들은 능선과 능선, 계곡과 계곡을 따라 커다란 원으로 이어져 있었다. 단절된 것이 아니었다. 하늘도 땅도 하나였다. 그 하나 속에, 동물과 식물이 함께하고 있었다. 동, 서, 남, 북, 너와 나의 구분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름다움은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고 했던가? 해발 4,900미터 고지 로보체 롯지(lodge)로 가는 길, 그곳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순백과 푸름이 조화를 이루고, 봉우리와 능선, 호수가 하나로 유연하게 이어져 있다. 그곳은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닌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다. 나는 로보체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한참 동안을….

최종 목적지 칼라파트르를 눈앞에 두고 일행 중 2명이 고산 증세로 등정을 포기했다. 우리는 천금같이 무거운 발걸음을 화면에 비치는 슬로비디오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옮기며, 위로 또 위로 올라갔다. 히말라야 산군(山群)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왔다. 보이는 것은 검은 바위, 얼어붙은 하얀 눈, 회색 구름, 푸른 하늘. 그것이 전부였다. 바람만이 시시각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도 바람 사이로 잠시 얼굴을 내밀고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해발 5,560미터 칼라파트르 제1봉,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길이 끝나는 곳. 바로 그곳에 내가 우뚝 섰다. 네팔 도착 후 9일, 트레킹 시작 8일 만에 올린 쾌거였다. 나는 하늘을 향해 스틱을 든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올라갈 듯이. 환희와 희열이 온몸으로 밀려왔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무엇이었다.

산행도 인생과 마찬가지로 왔던 길로 돌아간다. 우리는 고산지대로부터 도망치듯 서둘러 하산했다. 출발지였던 루크라로 귀환하는 데 단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카트만두행 비행기를 타고 문명사회로 돌아왔다. 이후 이틀 동안 나는 문명사회의 단맛을 한껏 맛보았다. 12일 만에 처음으로 머리도 감고, 면도도 하고, 몸에 비누칠을 하며 목욕도 했다. 먹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폭신평신했던 침대 위에서 단잠도 잤다. 마치 고향 집에 돌아온 양 포근함과 안락감에 젖어…。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했다. 내가 도망치듯 탈출해 온 바로 그 세계가 다시 생각났다. 티 하나 없는 파란 하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순백의 산군들, 코 끝에 스쳐가는 맑고 깨끗한 바람, 따스한 햇살, 얼음 아래로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 그리고 평온함. 순수한 자연의 세계가 그리워졌다. 그래서 나는 알았다.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원초적 본능이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오늘도 회색의 도시에서 사람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목욕도 하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가끔은 히말라야를, 에베레스트를 떠올리면서….

그러다 어느 날 원초적 본능이 강하게 되살아나면 나는 다시 배낭을 꾸릴 것이다.



흰 구름, 푸른 하늘. 여기가 어디인가



칼라파트르에서 바라본 히말라야 산군(山群)들